빛으로 가는 길

명상 시집

칠통 조규일

목차

빛으로 가는 길

글을 펴내며...

開 花 見

心鏡 1

心鏡 2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보며

의 자 (椅 子)

空 意

책을 덮으며 : 마음의 틈에 머문 여운

빛으로 가는 길

10분 명상 시집

칠통 조규일

글을 펴내며...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어제의 생각이나 사고를 버리고

오늘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새롭게 깨어나기 위해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갖고자

시계추처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육체는 비록 시계추처럼 살아갈지라도

정신과 영혼만큼은 한 생각 한 생각 깨어서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며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 듯

한 토막의 사색

보는 견 처로 드러나는 한 생각

오늘을 살아가는 교훈적 명구나 명언들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감정이 풍부하도록 자연을 노래하는 글

일상 속에서 번뜻 스쳐가는 예쁜 마음이 일어나는 글 등등으로

예쁜 편지지에 글을 쓰듯

감성적

감정적

애정적

심리적

사색적

영적

관념적

교훈적

시심(詩心)을 향취를 나누며 가세요.

시(詩)란 말씀(言)변에 절 사(寺)를 합하여 놓은 것으로

말을 최대한 줄여서 필요한 단어만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라 말들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시(詩)는 언어 자체가 시(詩)이고 말하는 자체가 시다.

흥겨워 노래하는 그 자체가 시(詩)다.

때로는 지어 짜서 만들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나 언어를 시라 할 것이다.

그러니 시를 모르면 이것이 시다 저것이 시라고

시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 안에 넣으려 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언어나 말 그 어느 것 하나 시가 아닌 것이 없다.

시는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이다.

태초 최초 한 마디 언어로 시작되어 춤과 노래 발전해서 온갖 문학의 장르를 만들어 내서는

무수히 많은 말들 속에서 말(言)의 절간(寺)으로 숨어든 것이 시(詩)다

그러니 말과 언어에서 보면 시 아닌 것이 없는데

시를 쓴다는 말의 절간에 있는 시인이란 작자들은 자기들만의 절간 속에서

절간 속에 든 것은 시라 하고, 절간을 벗어난 것을 시가 아니라 하였으나

다변화되면서 절간을 오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시는 좀더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포괄적인 곳에서 절간으로 들어가듯

포괄적 사회의 일상적 범위 속에서

일탈을 꿈꾸는 마음에서 육체는 비록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정신적, 영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의 절간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한 단계 승화시키는 시집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읽고 나서

즐겁고 행복하면 더욱 더 좋겠다.

開 花 見

내 마음도 벙글어

하늘하늘 아지랑이처럼

푸르름 짙어오는 벌판을 달리고

햇살 받아

맑게 드러난 꽃잎을 보면

자연 그대로의 색깔에

물든 내 마음도

맑고 깨끗한 빛깔을 닮아간다.

벙그른 마음

푸르름

짙어오는 벌판

달리고

햇살 머금어 맑은

꽃 색깔

어둔 마음

환하게

전등(電燈)을 킨다

2001. 04. 12.

心鏡 1

소슬하게

부딪혀 쌓아 올린

방파제의 벽과 편협

꿈에라도 잘게 부수어 허드레로 버리고

낯설은 광야로 달려가야 한다

나는 내 안에 갇혀

보아온

익혀온

낯익은 그대로가 전부라며

가느다란 목소리에 얼마나 큰 무게

실었는가

이제라도

두어 발 거리를 두고 덜어져

바라 볼 일이다

93년 이전에 씀

心鏡 2

알고 있는
사사로운 일과 이름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연으로 이어진 끈이란 끈
모두 다 끊어버리고
빈 항아리의 크기만큼 채울 수 있는
그 누구의 손기도 닿지 않는
넘어 너머 어디에
머물고 싶다

망막에 비치는 당황과
답답의 사슬 이어지는
도시 속에서
움직이는 미물이든
움직일 수 없는 형상이든
싫어
정말 싫어

바람의 동행자 되어 달린다

지긋이 눈을 감는다

잊으려는 이름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끊으려는 끈 줄줄이

늘어선다

93년 이전에 씀

바다

낮 동안

철썩 철썩

때리더니

저녁 되니 검게

피멍이 들고

밤새

철썩 철썩

피멍

빼서일까

아침햇살

반짝이니

은빛 금빛 영롱하게

푸르디푸르다

2019. 5. 25.

어둠이 밀려오는 바다를 보며 글을 한 번 써 보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보며

떠오른 태양을 향해 바다는

은빛 반짝 반짝

길을 연다.

태양을 따라 바닷물

여기 저기

불빛 반짝 반짝

깨어나는 빛의 향연

너울너울 꽃향출 향향

무리지어

바닷물 맑고 푸르게

은빛 반짝 반짝

무리지어 은빛 향연

철썩 철썩

하루를 깨운다.

2019. 5. 16.

의 자 (椅 子)

편안한 자리 만들어

날 찾는 이

사랑하며

바람에 먼지 쓰고

햇살에 얼굴 내민 땀구멍의

그윽한 향기 맡으리

곤(困)하여

길을 잃고 헤매다

넘어져 상처라도 입을까

발 밑에 융단을 깔고

두 팔로 끼여서 가슴 가득 품으리

체취를 그리워하는 어린 가슴에

모닥불 피워놓고

배회(徘徊)하는

당신은 바람

어둠 밟은

지난 시간의 그늘에서

생채기 묻어

갈 곳 없는 당신의 등대가 되어

조용한 뜰로 인도하리

空意

허공엔 티끌 하나 없는데
사람들은 보려하지 않고
달콤한 꿀만 쫓다
지는 꽃 따라 가네

태양은 나무가지 끝에 있고
매미는 나무 위에서 노래하네

지는 꽃, 떨어진 낙엽의
한없는 뜻
땅 속 깊이 깊이 묻어
티끌 한 점 없는 흙이어라
공간의 틈

서 있는 곳은
무한한 공간의 틈

얽히고 설킨 사슬의 정점에
나는 서 있네

옮겨가는 걸음걸음
틈 아닌 곳 있으랴만

넓은 공간만 고집하는 것은
아집인가

내가 아닌 내가
공간에 갇혀

벽 아닌 벽 속에서
무얼하는 건가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광활한 우주의
공간이 있거늘

서 있는 곳
무한한 공간의 틈이라
생각 드는 것은 왜 일까

책을 덮으며 : 마음의 틈에 머문 여운

바람이 불어와 허공에 흔적을 남기듯, 마음의 틈새로 흘러든 문장들을 모아 이 작은 책을 폅니다.시를 쓰고 읽는 시간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묻어둔 푸른 바다를 마주하는 일과 같았습니다.여기에 적힌 투박한 시선들이 거친 세상에서 지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고요한 거울(心鏡)이 되기를 바랍니다.책장을 덮고 밀려오는 여운이 향기로운 바람이 되어 당신의 매일에 스미기를 기원합니다.

Table of Contents

빛으로 가는 길

글을 펴내며...
開 花 見
心鏡 1
心鏡 2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보며
의 자 (椅 子)
空 意
책을 덮으며 : 마음의 틈에 머문 여운